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98호 현대불교

29

2012년 7월 25일(음 6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게 오는 이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답든 춤든 간에 그것도 마음이겠죠. 하여튼 마음이란 그놈이 바로 부처라고 불리죠.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답다 싶으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또 정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찌 더움이 가셔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리시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두가 마음으로 써 빛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마음으로 써 빛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땀방울이 하나 나오면 둘 셋이 따라 나오죠. 그런데 둘 셋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제일 첫째로, '이 모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몸뚱이 하나, 하나의 개체에 내 불국도를 건설할 수가 있어야 바깥의 불국도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학술적인 것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 관련한 법문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의 이름을 찾으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되풀이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나를 나오게 해 준 그 자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와 동시에 같이 믿는다.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육의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법의 부모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바로 자기 조상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 자체가 바로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과 이 나의 조상, 즉 말하자면 주인공이 동시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 놓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깨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워진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



그림 · 최주현

난년에 한 가지만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그냥 세계가 살고 있어요. 세계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

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길은 한 길이지만 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하고,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보고 들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때로는 욕구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굴러서 놓고 침착하게 대처를 해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했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소굴에서 뱀들을 때려잡는다가나 이랬다면,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지식 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지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지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보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또 영계성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막 뛰어 놀고 운동 집안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들 안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다면 정신 분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하나니까 주인도 하나여야 되는데, 딴 주인이 거기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냐 됩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자꾸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가지곤 몸을 자꾸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참견 다 하고 말입니다. 그 영계성이란 것이 이런 도리를 알아서 죽은 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랬다, 저리로 가랬다, 먹지 말랬다, 나가지 말랬다. 운동 야단법석을 하나씩 이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 분열이다 미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 본들 뭘 하며, 약을 먹어 봤던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두 개를 하나에다가 붙이면은 물방울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만(五萬)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 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개의 영이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으니까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인과성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인연에 따라서 그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많이 들어서 다시는 얘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公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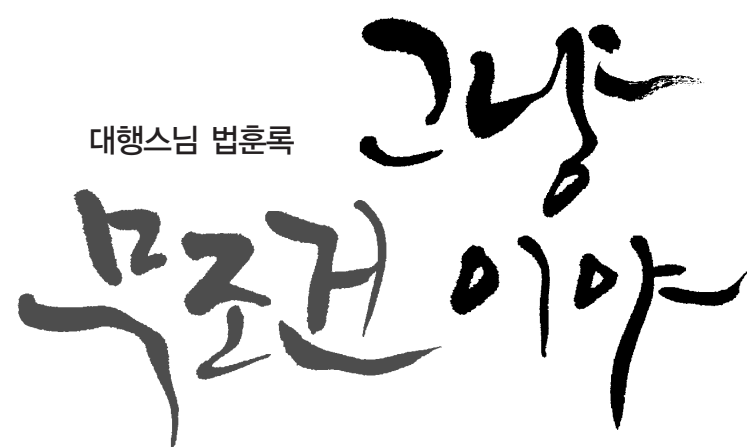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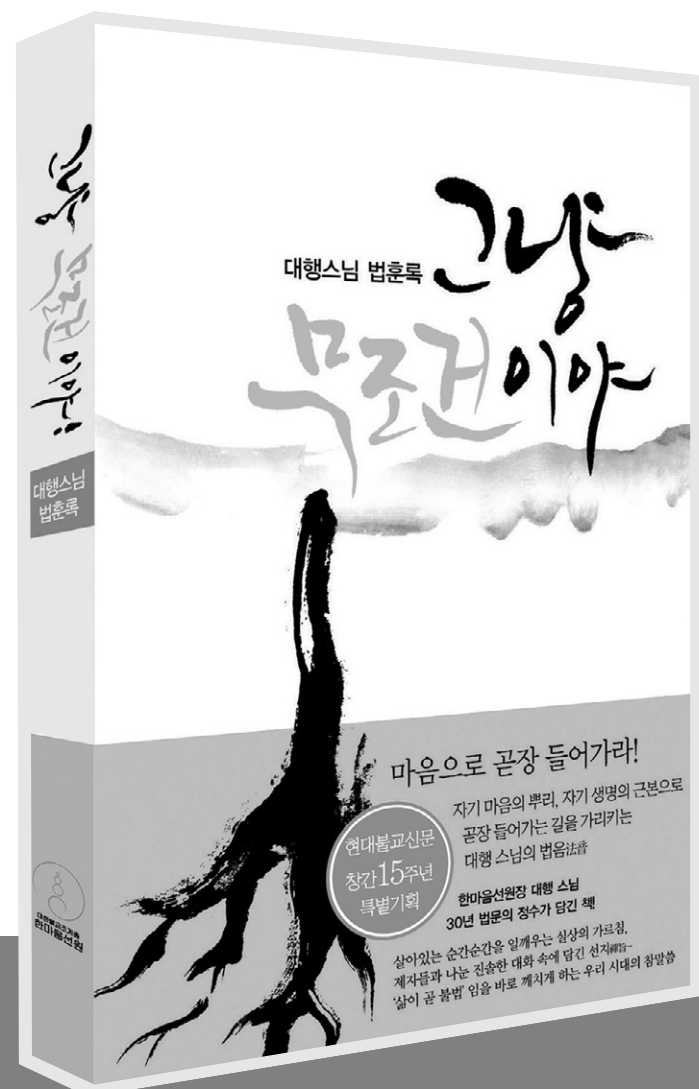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것입니다

29면에서 계속

조 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것을 주워 보라고 하셔서 그걸 주우니까, "그 냄새가 어떻냐?" 하고 물으셔서 "향 찼던 종이입니다." 했습니다. 또 가다가 새끼오라지 떨어진 것을 주워 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 너희들도 살아나 감에 있어 이 향을 찼던 종이를 따르려느냐, 썩은 생선 묵었던 새끼오라지를 따르려느냐?" 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오라지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강매 소굴에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듯이, 또 향을 찼던 종이, 향내 나는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의 바다 이리죠. 우리 몸에도 물이 있지만, 향수해(香水海)같이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전체 향수라면, 향수를 따르는 향수라면 얼마나 그게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나 선종의 인연이나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어나와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입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것을 속 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과거는 내 몸통이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라는 겁니다. 내 몸통이 속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에 대해서도 내 몸통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전성이라는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 많이 연결되니까 구분지심은 살생이 원인이지. 그러나 이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 이러면은 그것을 대처해서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남

을 애에게 꼭 그 값어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부모가 치르고, 그 대가를 또 자식이 치르게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를 낳지 딱 종자를 낳을 리가 없다는 얘기도,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딱 거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돌연변이가 있다면 딱 거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 염주에 염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종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어 있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염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염주 바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요? 하하하... "이걸 먹고 싹 물리나라." 하하하... "그렇게 물리치지 않는다면 국내 밭내도 못 맡게 지옥성애다 넣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돼야 국내 밭내를 맡지 어떻게 국내 밭내를 맡습니까.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그 뭐,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냥 국내 밭내도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코 불에 들어 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하하하...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려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 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것을 어디 가서 빌고

뭐 신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그래서 수풀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나무를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또 어디 도면 도, 시면 시, 이렇게 갈라서 다스리는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주립신(住林神)이라고 그러고, 주해신(住海神)이라고 말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주(主) 자 빼놓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마음 빼놓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기필코 이것을 다 부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부순다 부순다 하고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여하고 편안하게 나가는 거죠. 이 몸통이 하나가 그대로 조형에 켜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선장에 켜져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고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사히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부도가 났네 뭐가 났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물랐을 때에 부도가 나가 해 놓은 것을 어떡합니까?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주인한테 다 맡기고, 하늘이 무너져도, 회사가 다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너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하고 거기가 딱 맡겨 놓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하고 가는 거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사십니까? 자식이 지금 저기 물에 빠져서 동동둥둥 떠내려간다, 부모가 동동둥둥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그 자식도 건지고 부모도 건지지,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같이 다 죽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대요. "어머니가 고생 고생 하며 사시다가 늙어서 고생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쓰면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아도 그냥 그 어머니만 건지지, 그 어머니의 시자는 건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이 떠내려간다 이럴 때는 아직도 좀 시자 노릇을 할 테니까, 그 몸통이가 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사람이 와서 건지개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는 것도 건지게 돼서 살게 되고, 깔려 죽을 것도 다 살게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놀이가 아니라면 절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은 물론 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임신을 해서 별성을 낳을 때에 수없이 낳고 수없이 들이고, 또 수없이 나도 중심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이고 빌 수가 없습니다.

옛것처럼 위성이 뺏기고 하더군요. (대중 속에서 '무궁화호'라고 대답함) 무궁화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하하하... 그것이 뜰 때에 내가 말을 하길 그랬습니다. "하하, 이 마음공부들을 했으면, 들이고 내는 데에 저장처를, 조그마한 텀어리 하나 더 달았으면 아예 그냥 체대로 될 건데 모자라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성이 지구 밖에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한 거지, 딱 데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딱 데서 떨어져서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렸든지 내렸든지 간에 마음이 선장이죠.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95년 8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항상 하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처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다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숨을 또 내쉬지,
딱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하나입니다.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염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항상 하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처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다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숨을 또 내쉬지, 딱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한 궁전 가운데 텀구멍에, 텀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텀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보성' 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그제,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거어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예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 췌는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하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염보성이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이 자체가 풍랑 차레차레로 나오는 것을 내가 타치는 대로 거기가 놓으니까 차레차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지는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체 목신(木神)들, 즉 말하자면 식물들과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 그 모든 통신을 엮어 주는 멤버란 말입니다. 엮어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돌이키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는 자체에도 큰 나무들의 목신들, 꽃신들,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험한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감고 같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었습니다.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은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 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 배가 몸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파도가 치든 말든, 배가 얹어지겠으면 얹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딱 그냥 '어허, 내가 공(空)했는데, 배를 탄 거는 어딴데 배를 안 탄 거는 어딴데냐?' 파도친 거는 또 어딴데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이 웃음이 날

맹파명리 중국 단견업 선생 초 청 특 강

기존 명리의 단견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견업 선생의 강의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견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 강의시간 : 오전 10시~1시, 중식: 1시~3시, 3시~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 박형규
 -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 [위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함의 응용, 총의 응용, 부귀자자 접어내는 법
 -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견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031)918-7550, 011-1743-0543
 -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맹파명리연구원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촉대, 향로, 우패, 유기, 제기, 낚시,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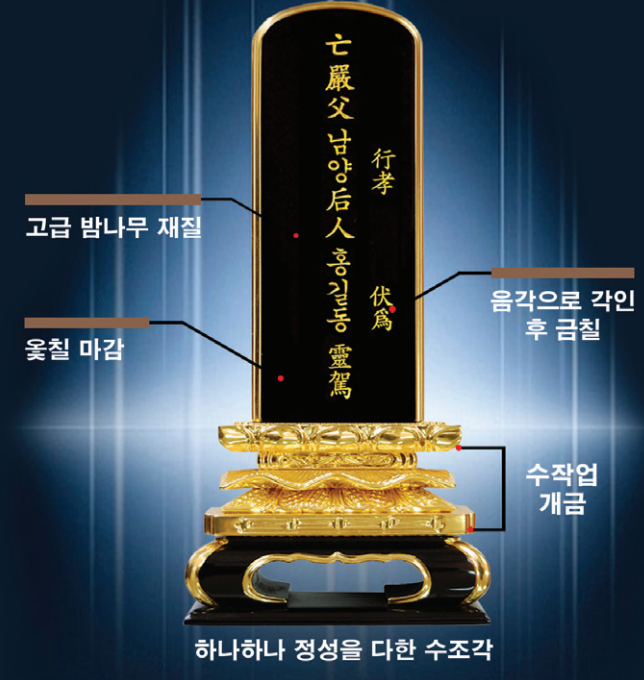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우패



•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우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곡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곡기 16mm ₩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법일) 010-9591-8599

☆ **무선** **이** **계** **좌** **예** **금** **주** **미** **륵** **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